

# 부안초 꿈꾸는 기자단이 쓴 김광수 의장 인터뷰...법안은 어떻게 만드나요?

지난 31일 부안초등학교 꿈꾸는 기자단과 부안중학교 기자단이 만나 부안군의회를 찾아 김광수 의장과 1시간가량 인터뷰했습니다. 이 중 부안초 기자단이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를 지난 7일 <부산독립신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말

## [김광수 기자]

Q. 부안군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부안군의회는 민선 30년째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열린지 30년이 되었고, 부안군의회는 현재 9대의 의회로 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회에서 모든 사업이나 군수가 집행하는 부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부안군 의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과거 15명까지의 의원이 있었지만 부안군 인구가 줄어 5만명 때로 현재 10명 의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견제, 감독,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들에게도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고 싶다. 끝났을 때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 [돌발질문]

Q. 타임머신을 타고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A. 초등학교 때 한 번에 학생 수가 60명이었다. 반장부터 시작하여 학생회장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 학생회장이 되어 학생들과 소통하고 단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배예지 기자]

Q. 의장님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저는 부산, 하서면, 계화면, 위도면 지역구로 부산에서 태어나 어렸을때부터 부산-부산으로 거쳐 부산에서 평생을 거주했다. 부산에서 살면서 마을 이장을 시작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때마다 제가 나서서 같이 동참하며 60년을 살았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입성하여 주민들께서 의원으로 선출했다. 4년을 거쳐 작년엔 주민들의 선택하였고, 10명의 의원들의 선출로 의장이 되었다.

## [박유진 기자]

Q. 의장님과 군수님이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A. 의장과 군수는 부안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의회는 독립 기관으로, 군청과 별개 기관이다. 주민, 학교 등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면 10명의 의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집행할 것들을 결정한다. 부안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 하나 잘 챙기고, 교육청과도 함께 협업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생각하면 좋겠다.



부안군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광수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부안초 꿈꾸는 기자단과 부안중 학생 기자단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급한 것이 지역에 남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김광현 기자]

Q. 의장님의 인생 법안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무엇인가요?

A.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조례 중 부안군민생안전지원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 [배예지 기자]

Q. 의장님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가요?

A. 해방 이후 배고픈 서러움, 가난한 서러움을 겪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다. 평소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온화한 성격으로, 부모님께서는 교사가 되길 희망했다.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에서 40년동안 봉사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박유진 기자]

Q.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려면 의회에 물어보면 되나요?

A. 세금은 세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소득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군민들이 내면 모아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무상급식 등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감시, 감독, 견제 하고 있다.

## [노하을 기자]

Q.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찬성이야 법안이 통과된다는 투표가 동물일 때 의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A. 모든 조례안은 의회에서 다루고 있다.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리되어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한다. 학교에서도 안건이 있을 때 여러 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찬반 토론 전 건담회를 여러번 개최하여 대화로써 설



득력 있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후 결정한다.

## [허연리 기자]

Q. 법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을 만들 때 특정 계층들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

## [김희은 기자]

Q. 부안에 어떤 의장님이요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 의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역할이다.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장이 되었고 의장은 4년의 임기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전반기 의장을 하고 있고 11개월차다.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임기동안에 뜻땀하고 군민



Q.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의장님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A. 그때 당시 선생님을 하고 싶은 꿈은 가정형편 때문에 하지 못했다. 우리 군민들과 여러분을 위해 의회에서 의장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다시 역으로 초등학교를 간다면 중, 고, 대학교를 거쳐 열심히 공부하여 성인이 되어 꼭 교사라고 싶다.

Q.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A.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담 정리 / 꿈꾸는 기자단

부산독립신문의 힘은 독자로부터 나옵니다

구독신청·광고·기사제보  
063)581-8787

## [김희은 기자]

Q. 법안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부안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용어 개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의회 의원들과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성을 제기할 때 부안군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지, 위원회 별로 구분이 되어있다. 의원들이 자치행정 쪽에 조례가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산업건설쪽에 조례가 올라오면 산업건설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본회의에 공포를 한다. 조례에 맞춰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 [허연리 기자]

Q. 의원님들은 싸우지 않아요? 화합을 위해 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가요?

A.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을 했을 것 같다.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 학급 일을 도와주고 리더 역할을 하라고 봤듯이 부안군 군민들은 일을 잘 하라고 우리를 뽑아주었다. 의원들은 13개 읍면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가담하여 지역발전에 공존경쟁하며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 [노하을 기자]

Q. 부안군이 최근에 만든 법안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지난 3월에 부안군 재난안전지원금을 의회에서 발의하여 30만원 지

꿈의댄스팀, 부안 춤추는 운동화

참여단원 모집

접수기간 2023. 6. 2. - 6. 14. 17:00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ac.or.kr / 이메일 : buan5295@naver.com

2023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광복-기초재단 협력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를 배달합니다, 시즌2 문화예술교육강사모집'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주는 '문화예술 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2023.6.5.(월) ~ 6.18.(일) / 14일간

모집분야 : 문화예술, 인문과학, 취미, 요리, 건강 등  
신청자격 : (예비)문화예술강사, 예술가, 문화활동가, 일반인 등  
지역문화예술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자

필수사항 : 문화아카데미(역량강화교육) 70% 이상 참석  
신청방법 : 부안군청 또는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사랑 : 예술진흥팀(070-4295-5117)

주최 : 전라북도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 후원 : 부안군